

분과 1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연수

사회 : 유소영(단국대학교)

##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지도 방안 연구

-문장 확장 지도를 중심으로-

이미혜(이화여자대학교)

### 1. 서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은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목록으로 556개(1급 45개, 2급 45개, 3급 67개, 4급 67개, 5급 56개, 6급 56개)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법 목록을 ‘조사, 선어말어미, 연결어미, 종결어미,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복잡한 문장으로 확장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문법 목록 중 연결어미, 표현을 단계별로 지도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 문법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 형태를 익히는 것으로는 문장을 확장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내포문(안은문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이끌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지향하면서 구어 중심의 문법 지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복잡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구조적 이해가 부족하여 연결 표현을 학습했음에도 복문 구성을 회피하거나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에 복문(특히 내포문) 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역량으로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어 문장 확장에 대한 교사들이 이해가 필요하며,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보완하여 지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 2.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내포문 교육에 대한 논의

- 선행 연구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문장을 확장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 한국어 모어 화자는 ‘-(으)ㄴ’ 명사절 379회, ‘-기’ 명사절 807회 산출했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는 각각 52회, 299회 사용함(김혜원·김은호, 2019).
  - ‘-(으)ㄴ’ 명사절은 20%, ‘-기’ 명사절은 66.2%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으)ㄴ’ 명사절 사용에 어려움을 보임(황선영, 2015).
  - 내포절 사용 비율로 한국어의 문장 복잡성 발달을 관찰할 수 있다. 초급(2급)은 평균 0.5개의 내포절을, 중급(4-6급)은 1.1-1.4개, 고급(8급)은 1.5개, 한국인 모어 화자는 평균 2.8개의 내포절을 산출하여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의 격차가 크다(남주연 외, 2016).
-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김지혜(2009)는 교재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으로 지도하고 시제에 따른 ‘-(으)ㄴ, 는, -(으)ㄴ’ 사용에

주목하며, 절 형식으로 수식하는 것에 대한 언급 부족함.

- ‘-(으)ㄴ, 는, -(으)ㄹ + 것’에 대한 제시는 분명하지만 ‘-(으)ㄴ, -기’는 묶어서 제시하고 있어 전자를 선호함.

- 한국어 교재의 자료 예시(이화한국어 1-2)
  - 초급에 1회 등장하며 문장 내 역할이 드러나지 않음.



#### V + 는 + N

-는 is attached to the end of a verb to modify the noun and indicates that an incident or action is currently taking place.

가 + 는 + 곳 → 가는 곳    읽 + 는 + 책 → 읽는 책    살 + 는 + 도시 → 사는 도시

### 3. 한국어 문장의 확장과 내포문 구성

-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이라 하고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 한다. 복문 중에서 두 절이 대등하게 이어진 것을 ‘접속문(이어진문장)’이라고 하며,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문장을 ‘내포문(안은문장)’이라고 한다.
- 내포문(안은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은 1) 명사절을 안은문장 2) 관형사절을 안은문장 3) 부사절을 안은문장 4) 서술절을 안은문장이 있다. 부사절을 안은 문장은 한국어교육의 연결어미 교육을 통해 그 의미와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논의는 명사절을 안은문장과 관형사절을 안은문장에 좀더 집중하고자 한다.
- 명사절을 안은문장
  - 가. 그가 범인입이 밝혀졌다.
  - 나. 어디로 문화수업을 갈지가 문제이다.
  - 다. 우리는 대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 관형사절을 안은문장
  - 라. 이 호텔이 내가 예약한 호텔이다.
  - 마. 풀만호텔은 이번 학술대회가 열리는 곳이다.
  - 바. 송중기와 송혜교가 재결합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 사. 저는 그 사람을 만난 기억이 없다.
  - 아. 최화정이 만든 오이 김밥으로 2kg를 뺐다.
  - 자. 오이 김밥을 만든 최화정이 누구예요?
- 내포문(안은문장)에서 주제 표시의 ‘은/는’이 결합할 수 없다.

### 4. 내포문 구성을 통한 문장 확장 지도

- 복잡한 내포문 구성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1) 교재의 문법, 즉 내포문 구성에 관여하는 문법에 대한 교사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2) 교육과정, 교재를 보완하여 지도해야 하며, 3) 학습자가 내포문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구성하도록 이끌고 학습자 오류를 수정하여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급에서는 동사, 형용사의 활용형으로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를 익히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고급에서는 내포문으로 활용되는 예를 통해 문장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2단계 문법으로 ‘-(으)ㄴ, -(으)ㄹ, -(으)ㄴ, -는’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중급 이상에서 문형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조사 ‘은/는’의 제약도 함께 지도할 수 있다.
- 숙달도가 낮을 때는 ‘-다는 소문/소식/연락/질문’ 등 관용구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숙달도가 높아지면 어떤 성질의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 가. -다는 + 말, 주장, 약속, 소문, 소식, 연락, 질문, 고백, 생각, 견해 등
  - 나. 경우, 가능성, 사건, 기억, 경험, 이유
- 문장 틀에서 일정 부분을 대체하는 연습을 통해 전체 문장 구조를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통제된 연습에 주력하는 것보다 오류를 유도하는 다양한 연습(예를 들면 그림을 활용해 이야기 구성하기)을 활용하고 오류 수정의 기회를 제공한다.

■ 참고문헌 ■

- 강현화 외(2016),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한글파크.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 김서형·홍종선(201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확대문 교육 방안: 관형사절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3, 115-136.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김지혜(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내포문 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20(1), 45-67.
- 김혜원·김은호(2019), 한국어 ‘-(으)ㄴ’, ‘-기’ 명사절 재포문의 실현과 학문 목적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연구, 언어와 문화 15(1), 57-96.
- 남주연·김양화·김영주(2016), L2 한국어 문어 산출에서의 통사 복잡성 측정, 한국어 의미학 51, 21-56.
- 박은희(2019), 한국어 유사 문법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465-493.
- 서희정(2018),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구조 다양화를 위한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72, 87-121.
- 진정·김정남(2023), 한국어 교재 속 유사 문법 목록 및 제시 양상 분석, 비교문화연구 69, 55-96.
- 최보선(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구어에서의 명사절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7), 57-70.
- 한정환(2002), 내포문에서의 화제화 제약과 정보구조, 한국어학 27(3), 535-556.
- 황선영(2015), 학문 목적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으)ㄴ’, ‘-기’ 명사절 인식 및 생산 연구, 언어와 문화 11(2), 351-370.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제

박지은(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제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제**

박지은 Park Ji Eun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King Sejong Institute Center Indonesia

## CHAPTER

## 01

## 서론

1

K-POP  
K-DRAMA

한국 문학

2

##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질적 성장의 필요

- 전문 통·번역 전문가 부족
-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 어려움

## CHAPTER

## 02

##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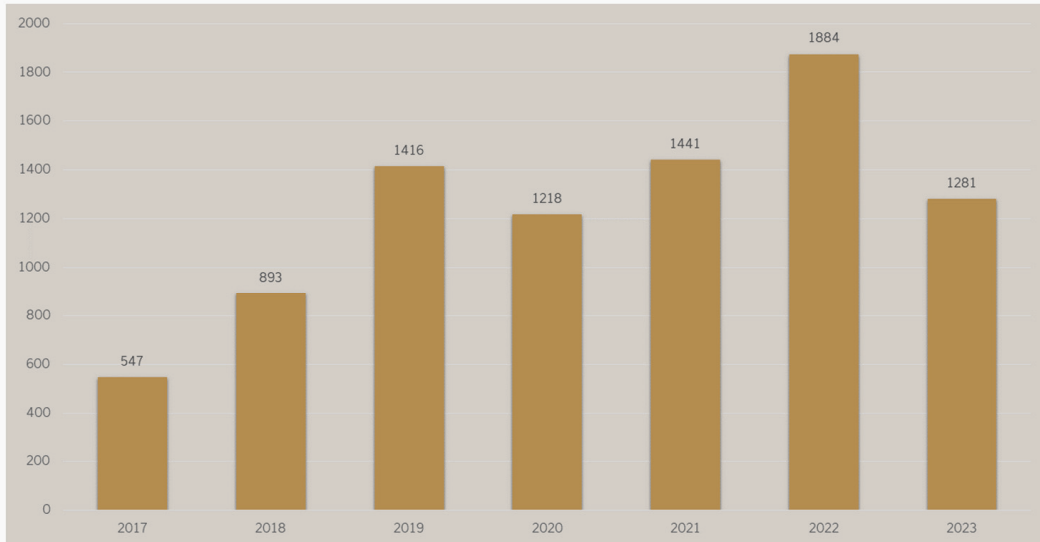
## 2.1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 공공기관

- 한국어학과 운영 대학
  - 가자마다대학(UGM), 인도네시아대학(UI), 인도네시아교육대학(UPI), 나쇼날대학(UNAS)
- 2013년 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지정
  - >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려움

## 사립기관

- 사설학원
- 세종학당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연도별 학생 수

CHAPTER  
02

#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문제점

## 2.2 초·중등 기관의 한국어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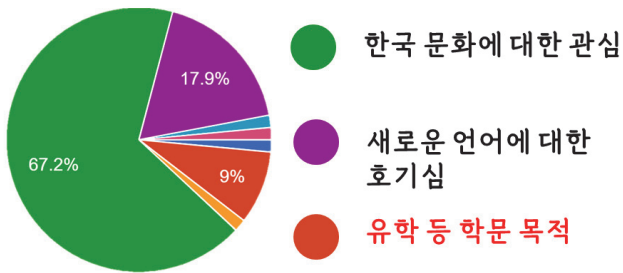
- 한국어 교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교수법 - 체계적이지 않은 수업
- 교재 -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거나 자체 개발한 교재의 오류 문제
- 수업 자료 - 시각적 자료 등에 대한 사용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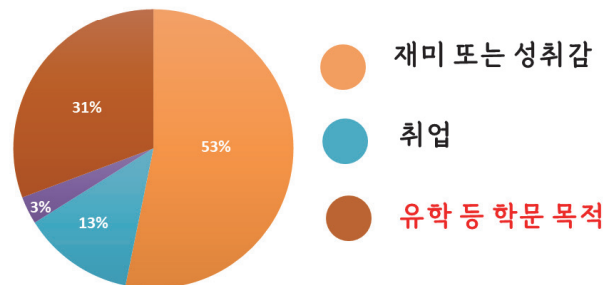
CHAPTER  
03

## 세종학당 중급이상 학습자 조사

한국어 수업 전  
학습 동기



중급이후  
고급목적 이유



CHAPTER  
04

##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및 재교육 현황

-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에서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2023년 인도네시아 거점 세종학당 + UI 학술대회를 하는 등 재교육 노력
-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등학교 한국어 교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재교육은 없었음

CHAPTER  
05

## 한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

첫째,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육자 및 교재에 대한 자료 수집 필요

둘째, 한국어교원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인증이 반드시 필요

셋째, 중급이상을 수료한 한국어 학습자들을 한국어 전문가로 유입 시키는 방안 필요

K I N G S E J O N G I N S T I T U T E C E N T E R I N D O N E S I A

CHAPTER  
06

## 결론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번역가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또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노동자를 위한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등에서 자질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자료 수집 및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원의 양성 및 교원 재교육 필요성과 한국어교원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과 이를 위하여 점차 늘고 있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 I N G S E J O N G I N S T I T U T E C E N T E R I N D O N E S I A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제

#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 ‘한국어 통번역 수업’을 위한 교원교육 내용 구성 방안

– 세종학당 통번역 시범운영 교원교육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신윤경(가천대학교) · 이진경(건양사이버대학교)

### 1. 서론

한국어교육 분야는 글로벌 한류 열풍, 한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학문적 연구의 발전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전문적인 한국어 능력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어 통번역 능력은 특수한 전문 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일상 생활, 학문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 학습에서의 최상의 목표는 목표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며, 언제 어디에서든지 통번역이 가능한 수준을 갖추는 것일 수밖에 없다.

최권진(2006)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통역과 번역을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목표이며, 한국어 교육에서도 통역과 번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sup>1)</sup>했다. 이민우(2012)에서는 한국어 통번역은 학습자들의 잠재적 요구도가 높은 것에 비해 통번역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적은 점을 지적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정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통번역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어 통번역과정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어 통번역 과정은 통번역 전문가 양성이 목적이 아닌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통번역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개론 수준으로 정하고 학습자들이 실제 적용 가능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해외 대학에서도 한국어학과에서 통번역 교과목을 개설하고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세종학당 교육과정에 통번역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연구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의 개설의 필요성과 요구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수행할 한국어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에 통번역 교수법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김혜영(2021)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에 ‘한국어번역론’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한국어교원양성과정에서 이 교과목이 운영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어교원을 대상한 번역교수법 연구도 전무함을 지적하고 한국어교원을 위한 번역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유일한 선행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에게 통번역 교수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번역 교수법 교육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학당 통번역 시범운영 과정 사업에서 진행한 교원교육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했던 수업 담당 교원들의 요구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원을 위한 통번역 교수법 교육 내용의 기틀을 만들고자 한다.

1) 김혜영(2022:74)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번역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오춘화(2001), 장민(2005), 홍영매(2005), 김기석(2006), 고암(2009), 장정운(2011), 하안나(2012), 한정은(2014), 고효정(2016), 유정숙(2016), 정이봉(2018), SitiZubaidah(2018), 서진석(2019), 이정(2019), 김소영과 최권진(2020), 최권진(2021), Quan Honghua(2021) 등)는 많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지, 한국어교원을 위한 번역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없음을 밝히고 있다.

## 2. 연구 배경

### 2.1. 세종학당재단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배경 및 추진 사항

세종학당재단은 2020년부터 세종학당 한국어 기초 통번역 교육과정 운영 방안<sup>2)</sup>의 연구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남방·신북방교류 협력 확대 정책에 따라 해당 국가 중심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4년 동안 한국어와 현지어 간 통번역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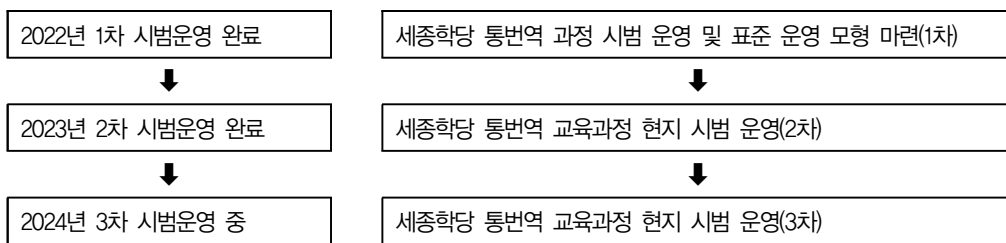
세종학당재단은 2020년 세종학당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통하여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단계 통번역 교육과정 기본 모형 마련, 2단계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개발, 3단계 교원 교육, 4단계 시범 운영으로 구분된다.

### 2.2. 세종학당재단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 운영 현황과 주요 내용

#### 2.2.1. 시범 운영 현황

세종학당재단에서는 2021에 통번역 기본모형을 개발하고, 12개<sup>3)</sup> 언어권 통번역 교재를 1차로 개발하였다. 이어 2022년에는 12개 언어권의 2단계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시행하여 통번역 과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번역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세종학당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운영 사업 추진 현황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운영 추진 현황

1차 시범운영에서는 12개 언어권 중 8개 언어권<sup>4)</sup>에서 통번역 교육과정을 개설, 2차 시범운영에서는 태국어가 추가 운영되어 9개 언어권에서 개설하였다. 두 번의 시범 운영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각 나라의 정세와 언어 선호도 등에 의해 ‘미얀마어, 힌디어, 카자흐어’ 3개 언어는 시범운영할 수 없었고 이 언어를 제외한 총 9개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교재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2023년에 4개 언어권(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포르투갈어) 통번역 교재가 개발되었으며 2024년 현재 4개 언어권 8개 학당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 방교영(2020), 세종학당 한국어 기초 통번역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3) 베트남어, 키르기스어, 몽고로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틀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카자흐어, 미얀마어, 힌디어

4) 베트남어, 키르기스어, 몽고로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우즈베틀어, 러시아어, 중국어

### 2.2.2. 시범 운영 내용

세종학당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 운영은 현지 학당의 시범 운영 지원, 교원 교육, 교재 의견 및 피드백, 요구 조사를 위한 만족도 조사와 결과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종학당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 운영 주요 내용

교육과정 시행	○ 기초 통번역 교육과정 시범 운영/본격 운영/안정운영
교원 확보 및 양성	○ 통번역과정 전문 교원 선발 및 파견 ○ 통번역과정 교원 연수
요구조사 및 피드백 실시	○ 현지 학당 요구조사 및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분석 → 교육과정 개발진과 협업

이 시범 운영 사업은 위 표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지원과 통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통번역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들이 대부분 통번역 수업의 경험이 없는 데다가, 통번역 교수법 교육 또한 받은 적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교육, 수시교육, 보수 교육으로 교원교육을 3단계로 구성하여 실제 수업 운영 전에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수업 운영 기간 중 5회, 해당 언어 통번역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사들의 문제해결 중심으로 수시교육을 진행하였다. 시범 운영이 마무리된 후에는 보수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시범 운영의 의의, 결과, 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 3. 교원교육에서 도출된 요구사항 분석

시범운영에서 진행된 ‘사전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중 교원들의 요구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은 ‘수시교육’이었다. 수시교육의 목적은 교원들이 수업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질문사항을 모아 전달한 후 교육 강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질문은 2차 시범운영 사업 9개 언어권 총 24개 학당의 5차에 걸쳐 진행된 수시교육에서 받은 것들이다. 2차 시범운영 사업에 가장 많은 학당이 참여했으며 수시교육도 5회로 진행되어 도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원교육 방향과 관련된 내용들만 추리면 64개의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1	온라인 수업 관련 질문	- 줌 수업 동안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2	교재 관련 질문	- 모국어에서 한국어로 정보 전달 연습 추가 방법 - 교재 내용과 교실 열기의 어려움에 관한 질문 - 역할극 통역 시 인원 조절에 관한 질문 - 교재 내 생각 모으기 부족에 대한 의견 - 통역하기 과제의 효과적인 진행 방법에 관한 질문 - 통번역을 활용한 간단하고 재미있는 활동에 관한 질문 - 통번역 본문과 번역 본문의 난이도 차이에 대한 의견

3	번역 활동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화 번역을 위한 프로그램 추천</li> <li>- 번역 문체 선택에 관한 질문</li> <li>- 영상 더빙과 자막 추가 방법에 관한 질문</li> <li>- 번역 도서의 번역 방법과 평가에 대한 질문</li> <li>- 동화번역에 대한 예시 요청</li> </ul>
4	통역 활동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시통역 동영상과 연습 방법에 관한 요청</li> <li>- 역할극 통역 시간 조율 방법에 관한 질문</li> <li>- 한국어 역양 향상을 위한 팁에 관한 질문</li> </ul>
5	언어 및 문법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가표현 다양성 증진 방법에 대한 질문</li> <li>- 번역 목적에 따른 언어 사용 방법에 관한 질문</li> <li>- 문서 번역 시 한국어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li> <li>- 번역 시 중요한 문법 사항에 관한 질문</li> <li>- 새로운 문법 학습 문장 부족에 대한 의견</li> </ul>
6	문화 및 특수 용어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역 연습을 위한 차용어 모음 자료 요청</li> <li>- 한국 음식 및 이름 통역에 관한 질문</li> <li>- 한국인 이름 로마자 표기에 관한 질문</li> <li>- 우즈베크어 및 태국어에서의 문화 관련 번역 질문</li> </ul>
7	평가 관련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드백 제공 방법에 관한 요청</li> <li>-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방법 질문</li> </ul>

가장 많은 질문은 ‘교재와 교육 자료’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는 세종학당에서 제공한 통번역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로 교재활용에 대한 질문이었고, 학생 수준과 교재 수준의 차이 극복 문제, 교재에 제시된 활동 외에 추가 활동 요구 등이 있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통번역 교수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어 교사들에게 통번역 수업은 낯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통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의 팁이나 노하우 등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이 외에 번역 목적에 따른 언어 사용 방법이나 문법에 대한 질문들은 통번역 교수법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문화’ 관련 질문이었다. 한국 음식 및 이름, 차용어 등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반대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통번역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관련한 것으로 학습 성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평가 도구와 방법에 대한 요구 등이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몇몇 학당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 4. 통번역 교육을 위한 교원교육 내용 구성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 4.1. 통번역 기술 역량 강화

교원들의 통번역 핵심 기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통번역 기술 및 도구의 사용법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들도 통번역 기술을 익혀야 한다.

## 4.2. 교육자료 구성 및 교수법

실제 통번역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가 없다고 한다. 통번역의 대상이 실제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교재는 학습 방법과 교수법을 포함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원은 통번역 수업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종학당도 그 이유 때문에 교재를 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번역 수업을 위해서 꼭 교재 제작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통번역의 대상은 실제 자료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갖춰야 할 역량은 교재 작업이 아니라, 실제 자료들 중에서 학습자들 수준과 목적에 맞는 자료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수업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 수업자료를 수업 단계와 절차에 따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교수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 4.3. 학습자 이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준과 배경을 고려하여 유연한 교육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수업 형태를 융합하거나, 학습자들의 성취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4.4. 문화적 이해와 언어 능력 향상

한국어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학습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한국어로서의 완벽한 의사소통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통번역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통번역 수업에서는 모국어와 한국어 간의 자연스러운 전환 및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원들이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이 그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원은 학습자들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머지는 학습자들 스스로 토론과 활동을 통해 채워 나가도록 유도하는 교수법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 4.5. 평가 방법 및 피드백 체계

학생들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평가 도구와 방법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 5. 결론

지금까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국어 통번역 수업을 위한 교원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내용 구성은 세종학당의 통번역 과정 시범운영에서 실시되었던 수시교육의 질문 분석이 기초가 되었다. 통번역은 언어교육의 시작점이었고 미래의 종착점이 될 것이다. 한국어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한국어교육의 질적, 외적 확장을 위해



통번역 교육은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교원들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고암(2009),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연구 .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고효정(2016),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통·번역 교육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기석(2006),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교육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18, 245-266. 서울대학교.
- 김소영·최권진(2020), 한국어 번역 교육의 실제: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학과 번역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4), 805-824
- 김혜영(2021), 한국어교원을 위한 번역 교육의 현황과 과제, 통번역교육연구 19(2), 한국통번역교육학회, 73-100.
- 최권진(2006), “통역을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중언어학 32, 이중언어학회, 349-379쪽
- 오춘화(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번역교수의 효율화 방안 연구, 중국학논총 11, 443-461.
- 유정숙(2016), 터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수업 개발 연구: 예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터키어-한국어 번역 연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2), 73-97.
- 장민(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번역 교육, Korean 연구와 교육 창간호, 137-146.
- 장정윤(2011), 번역 교육 모형설계를 위한 고찰: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이봉(2018), 중국 대학 학부생을 위한 한중-중한 번역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이민우(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2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2019),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한국어 번역 교육 연구: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 임형재 · 송은정(2016), 외국인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현황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03-332쪽.
- 임형재 · 김금숙 · 허은혜(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학의 이해, 서울: 하우.
- 하안나(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번역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한정은(2014), 학부 중한번역수업에서의 번역이론 적용가능성: 해석이론 중심의 고찰, 통역과 번역 16(1), 225-252.
- 허은혜(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2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53-174.
- 홍영매(2005), 한국어 교육에서의 중한 번역 교육 내용 구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Quan Honghua(2021),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번역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Siti Zubaidah(2018), 인도네시아 대학에서의 한국어 번역 교과목 개선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인도네시아 학습자 대상 글쓰기 오류 분석 연구

이미향(영남대학교) · 아흐마드 리오 테시아르(가자마다대학교)

###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특성을 살펴, 대상 학습자의 글쓰기 교수 학습 시 고려할 사항을 알아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의 글을 받아 오류를 확인하면서 해당 오류에 대한 분석을 대조분석학적으로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의 언어 전문가 2인이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KF 글로벌 e스쿨 사업으로 한국어 글쓰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한국어교육 연구자와, 해당 수업을 수신하는 가자마다대학교에서 글쓰기 과목을 지도하는 한국어교육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한국어 글쓰기 수업에서 부과된 과제를 가자마다대학교 3학년 학부생들이 수행하며, 그 오류를 인도네시아어 전문가가 대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글쓰기 교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쓰기 수업에 참가 중인 학습자는 가자마다대학교의 3학년 전공 학생 42명이다. 매주 한 편씩 글을 제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분석 대상이 된 글은 문단 3개 분량(800~900자)의 글로, 제출할 글의 주제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었다. 학습자들은 원고지 형태에 작성하였으며, 본인 이외의 사람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제는 교실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2. 인도네시아 학습자의 글쓰기 오류 유형 및 분석

#### 2.1 글의 구성 단계

먼저 참여자의 글을 구성 단계에서부터 살펴보았다. 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성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다. 대상 글의 수준은 국외 대학의 학습자 평균 수준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를 어려워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다음 예 1) 중 b의 경우는 글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내용상 문단을 나누지 못한 것인데, 쓸 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 d는 글로서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데, 한 편의 글에서 마지막 문장을 ‘다른 사람을 사우지 마세요.(2)’로 마감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sup>1)</sup>

1) 이 글에서 ‘(숫자)’는 참여한 학생의 이름을 대신하는 기호이다. 과제 결과물의 출처를 찾는 동시에, 특정 오류가 동일 학습자의 반복되는 오류인지, 또는 다수 학습자의 일반적 오류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번호를 붙여 표시했다.

- 예 1) a. 형식상 문단을 이루지 못하고 문장 단위로 글을 끊음.  
 b. 글에 구성 단계가 없이, 한 문단으로 된 글로 작성함.  
 c. 형식상 한 문단으로 써졌으나, 내용상 글에 구성이 있음  
 d. 글에 마무리가 없거나 글을 완성하지 못함

다음으로 문단의 연결 관계를 살펴본다. 학습자들은 문단을 내용에 따라 다음 사례와 같이 설계하였다.

- 예 2) a. 나열식 구성  
 b. 문제-원인  
 c. 원인-결과  
 d. 문제-해결  
 e. 문제-원인-해결  
 f. 정-반-합

글을 일정 구성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문단별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의,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예시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둘째’ 등으로 나열되는 구성(a)에서는 ‘첫째’ 이하가 없거나, 각 항목을 드러내는 문장이 균형지게 써지지 않는 오류가 보였다. 인과관계로 된 연결에서는 적절한 접속어가 필요한데, 몇몇 사례에서 ‘그러나’와 ‘그래서’의 혼동, ‘그러므로’와 ‘그럼으로’가 잘못 쓰인 사례가 확인되었다. 위 예 2)와 같은 구성이 없는 경우, 긴 글의 후반부에서 학습자는 주제를 벗어난 글을 쓰는 오류를 보였다.

## 2.2 입말과 글말

한국어 글쓰기에서 구어와 문어의 구별은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문어를 접하기 어려운 국외 한국어 학습자는 특히 문어를 명시적으로 배워야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입말과 글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입말을 활용한 오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예에서 도출된다.

- 예 3) a. 이거는(5, 18), 그거는(3, 14), 그계(40), 좋을 거라고(24)  
 b. 하지만(5)  
 c. 있습니다/ 있다(18, 33외 다수)  
 d. 방금 언급한 점들을 잘 지키면(4)  
 e. 기술 부족하는 것이다(16), 소음 너무 나오고(18), 의사소통 중요하게 된 이유는(20), 의사소통 통해 혼란 일으키지 않고(34)

입말과 글말의 구별에서 가장 큰 오용례는 ‘것’을 ‘거’(a)로 쓰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것’보다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두에서 쓴 줄임말 ‘하지만’(b)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쓰기에서 학습자가 ‘합쇼체’와 ‘해라체’의 혼용례(c)를 보이는 예시는 흔한데, 주목할 것은 이런 서술어 혼재를 보이는 학습자도 상용 표현은 기억하고 있어 해당 구절에 실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또 ‘방금’(d)은 대면 상황이 전제되고 시간이 공유되는 입말 상황에서 쓰인다. 글에 등장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글에서 조사를 생략하

는 예(e)를 다수 드러냈다. 이런 점은 명시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말과 글말을 구별하지 못한 학습자의 글에서는 글이 미완되거나, 형식 문단 구분이 없고 글의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글쓰기 학습자로서는 종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글말을 알지 못하는 학습자의 글이 쓰기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가장 어려운 대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2.3 문장 생성의 과정

### 1)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은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다음 예 1)에서 a는 서술어가 해라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에서 겸양표현인 ‘저’를 쓴 사례이다. b는 주어부에 맞는 술어부가 없는 것이다. c는 서술어에 대한 주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주어가 여러 번 겹쳐 등장하여 서술어와 그 짝이 맞지 않게 된다. 희망적인 점은 d와 같은 상용 표현에서는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어로서의 글쓰기의 일정 부분은 모방적 글쓰기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주로 글쓰기를 도와주는 상용 표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 예 4) a. 저 생각에는 ...한다(1)  
 b.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11), 목적은 ...이해할 수 있다(15),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은 부족이다(15)  
 c. 말하때는 느낌이 안 좋아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합니다(18), 의사소통은 중요한 것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28)  
 d.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9)

### 2) 절 생성 과정에서의 오류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절 단위의 오류가 확인되었다. ‘의사소통은 왜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다(14)’에서는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좋은 영향을 주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29)’에서는 연결어미 ‘-어서’와 ‘-(으)므로’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이 어색하게 된 경우이다.

가장 특이한 예시는 바로 명사절 ‘-는 것’의 오류이다. 학습자들은 ‘-는 것’을 a와 같이 과잉으로 사용하였다. 그중에는 b와 같이 ‘-기’로 잘못 대체한 경우도 있고, c와 같이 두 가지를 섞어 쓴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학습자들은 ‘-는 것’의 용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 예 5) a. 중요한 하는 것이다(1), 아름다운 하는 것이다(1), 세상에 필요한 하는 것이다(1), 다른 나라와 친구라고 말 하는 것이 있으면(2), 사람은 누구나 매일매일 말을 하는 것이다(38)  
 b. 우리가 사과를 드리기가 그 예이다(17)  
 c. 의견을 전달하기는 것입니다(18)

### 3) 수식어 오류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면서 수식어가 잘못된 예가 많다. 다음 예 6)은 관형어 자리에 부사어가, 부사어 자리가 관형어가 적힌 것이다.

- 예 6) a. 관형어 자리: 많이 사람을(2), 위해 과정이라는 뜻이다(8), 그 일의 할 때(8),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게 경우가 있다(14)  
 b. 부사어 자리: 모두다 사람이 항상(8), 방법은 아주 있다(12), 의사소통에 대한 잘 되는 방법이(14), 정보에 대한 전달하기 위해(19), 편지 쓰기 위한 사용한다(22)

인도네시아어에서 관형어와 부사어는 그 구별이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에 대한’과 ‘에 대해서’의 대응되는 말은 ‘tentang’이다. 만약 ‘A에 대한 영화’라고 하면 ‘film tentang A’, ‘A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Berbicara(이야기한다) tentang A’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에 대한’과 ‘에 대해’를 오류 없이 쓰려면 한국어 문장성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 4) 조사 오류

조사는 교착어인 한국어 문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 예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의 쓰임에 대한 오류(a), 주격과 목적격 조사의 혼동(b), 격조사와 보조사의 혼동(c)이 있는데,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오용례는 b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에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없어서 ‘-을/를’을 배우고 쓸 때 힘들어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서술어에 이끌린 문장 구조 오해에서 비롯되는 점이 있다. 한 예로 ‘있다’를 살펴보자. 서술어 ‘있다’에 대응되는 인도네시아 말로는 ‘ada’와 ‘punya’가 있는데 ‘ada’는 자동사이고 ‘punya’는 타동사이다. Saya ada di kamar(나는 방에 있다), Saya punya uang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 되는 것이다. 이에 ‘있다’가 포함되는 문장에서 학습자 모어에 기댄 글쓰기는 오류를 생성할 수밖에 없다.

c에서는 새 정보로 출현하는 주어를 문두에서 보조사로 드러낸 것과, 보조사가 결합할 때는 격조사를 탈락시켜야 함을 알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글을 쓰면서 조사를 생략한 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조사 오류의 한 유형으로 판단된다. 생략 및 탈락은 필요 없는 조사의 첨가(d)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조사의 생략과 첨가에 대한 교육 내용이 인도네시아 학습자 대상 글쓰기 교수 학습에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할 바다.

- 예 7) a. 의: 다른 사토리의 많이 알겠다(1), 의사소통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14), 말하는 사람과 상대방이 경우가 있다(14), 서로의 이야기해서(26)  
 b. 주격-목적격 혼동: 관계를 생기고(6), 의사소통을 쉽다(6), 사람을 보이지 않다(8), 말을 들리지도 않고(13), 이해를 안 되다(14), 이해가 할 수 없을 것이다(15), 의사소통을 이루어진다(15), 의사소통을 필요한다(18), 오해를 자주 발생한다(19), 상호작용하는 것이 자주 한다(21), 의사소통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21), 보통 대화 하는데(22), 문제를 생기면(23), 다른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24), 혼자 사는 것이 못하기 때문에(26), 좋은 관계를 있어야 한다(26), 다른 생각이 잘 알 수 있다(26), 그 원인이 들 수 있다(29), 연결성이 더 넓게 하는 것(29)  
 c. 격조사-보조사 혼동: 의사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다(9), 작은 것들부터(38)

d. 발전시키기 위해서에 중요하다(19)

## 5) 용언의 활용상에 나타난 오류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학습자들이 용언 활용에서 오류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한 점이다. 학습자는 조사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는데, 먼저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잘 되지 않은 데 따른 오류가 다음 예 8)과 같이 고빈도로 확인된다. 특히 ‘필요하다, 중요하다’에서 오류가 많은데, ‘필요하다’에 대응되는 말 ‘butuh’은 동사라서 이런 예시가 많으나, ‘중요하다’에 대응되는 인도네시아 말 ‘penting’은 형용사인데 고빈도로 오류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 예 8) a. 동사를 형용사로: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5), 사람을 보이지 않다(8), 귀를 기울이다(15), 이루어지지 않다(37), 이루어지지 않은(37)  
 b. 형용사를 동사로: 중요하다(9, 22, 26, 39), 필요하다(12, 18, 27), 부족한 것이다(16), 오해한 경우가 없게 만들다(16), 중요하는지(39)

또한, 학습자들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부정확한 결합 형태를 보이는데, 어미가 붙는 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인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예 9)의 a~e를 보면 인도네시아어 학습자에게 문법 교육 시 다양한 방식의 형태초점 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예 9) a. 내면을 뿐만 아니라(6), 않는 한다(12, 안 한다), 않는 하면(12, 안 하면)  
 b. 쉽으며(6), 있으면(12), 들면(12, 들으면), 못할 하면(15), 물어하고 싶은 것으면(41)  
 c. 달라다, 달 수 있다, 달란 사람이(12, 다르다)  
 d. 이해지도 않아도(13),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할 수도 있다(41)  
 e. 의사소통은 사람에게 방법으로 하는 표현형이다(8), 갈등 겪는 될 수 있다(26), 오해하지 않는기 위해서(38)

## 6) 기타 문법범주에서의 오류

그 밖의 문법 범주 중에서 오류를 보이는 그 밖의 사례는 피동, 부정, 시제 표현 관련에서 나타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부정문 오류인데, 주로 ‘못 부정문’을 ‘안 부정문’으로 표현한 오류가 많다. 내용 전개상 안 맞는 시제 표현 오류가 있고, 피동문의 오류는 문법의 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 예 10) a. 부정 표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20, 못 부정문), 글쓰기는 그렇게 하지 할 수 없다(22), 많은 사람이 말을 할 때 애(내)가 안 잘 한다(40, 못 부정문),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할 수도 있다(41)  
 b. 피동 표현: 의사소통은 인맥을 넓기 위해 중요하다(4), 일이 잘 진행한다(39)  
 c. 시제 표현: 시간이 있으면 ... 잘 보냈습니다.(2), 우리의 장래에 영향을 주었다(28)

## 2.4 어휘 사용의 오류

인도네시아 학습자가 선택한 어휘가 한국어 표현에 비출 때 어색한 경우를 다음 예 11)에서 정리했다. a는 인생, 간,

나이, 실제 등 주로 어휘의 정확한 사용 범위를 모를 때 일어나는 예시로 판단된다. 그중 ‘실제로 말하면’은 ‘실제’와 ‘사실’이 인도네시아의 말로 같은 단어(kenyataan 또는 sebenarnya)로 번역되는 데 비롯한 것으로 해석된다.

- 예 11) a. 인생생활(5, 인생), 개인이 간에(13), 어린 나이부터(29, 어릴 때부터), 실제로 말하면(35)  
 b. 감정적이다(15), 강제적이 결여되어 있다(19), 의사소통적도 잘 못한다(24), 서로 사교적에 살고(26), 언어적과 비언어적으로 나뉜다(28)  
 c. 그 따라서(15), 이 쓰기를 따라서 의사통은 아주 중요하다(40)

흥미로운 것은 ‘-적’이 붙은 b의 사례인데, 학습자들은 관형어로 기능하는 ‘-적’ 다음에 수식을 받을 명사가 없이, 바로 조사를 붙여 문장을 생성했다. 심지어 격조사가 바로 붙어, 예시만으로 볼 때는 학습자들이 이를 명사로 인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한국어 ‘-적’과 대응되는 인도네시아어는 ‘secara’이고, 그 품사는 ‘partikel(조사)’에 해당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언어적’은 ‘secara bahasa’, ‘비언어적’은 ‘secara non bahasa’와 같다. 결국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접미사 ‘-적’을 조사로 인식하면서 학습자의 지식 수준만으로는 문장 내에서 정확한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휘를 문장에서 잘 사용하는 것은 학술적 한국어를 사용하는 중급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한 내용이 되므로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

- 예 12) 연어 구성에 대한 오류: 상황이 필요가 있다(15), 중요한 필요이다(15),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한다(16), 배려를 줘야 한다(17), 소음 너무 나오고(18), 실력을 증상할 수 있다(21), 생각이 안 나올 수 있다(26), 여가가 명확하게 채운다(29), 상황이 느끼면(38)

예 12)의 사례들은 연어 구성에서 어색한 표현이 보인 예이다. 대부분 직역에 의존한 결과로 보이는데, 고빈도의 표현이라면 인도네시아 학습자를 위한 교수 학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를 교재와 연습 사례에서 명시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입력 강화와 입력 홍수의 방식으로 익숙하게 해 주는 등이 있다.

## 2.5 소리 인식 및 철자 오류

학습자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는 문자의 표기 오류로 나타난다. 외국어에서 철자를 지켜 쓰는 것은 원래 실수가 잦은 일이라, 글쓰기에서 치명적인 오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오류가 특정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특정 언어권 학습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히 넘길 수 없다. 본 연구 자료를 통해 다음 예 13~15)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정리했는데, 특히 종성에서 많은 오류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성 오류로는 ㅅ/ㅆ, ㅈ/ㅊ, ㅂ/ㅃ 등의 혼용례와, 종성의 영향을 받아 ㄴ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초성 오류는 다른 위치와 비교할 때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종성 오류로는 ㄱ/ㄲ, ㄴ/ㄷ, ㄴ/ㄹ에서 혼용된 사례가 많다. 이 모음을 구별하는 것은 대부분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음운론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ㄱ’과 ‘ㄲ’ 구별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철자가 정확해야 하는 글쓰기에서 의미 소통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곤란한 사례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 예 13) 초성 오류: 사우기(2), 만남예(3), 체대로(23), 솔착하게(23), 친찰(33), 텔레피전(41)



## 예 14) 중성 오류

- a. ㅂ/ㅍ: 여증(2, 29), 정류(4, 종류), 의사서통(12), 그레소(14), 목죽(15), 물론(21), 서러(24, 39), 부적(32, 부족)
- b. ㅂ/ㅍ: 사토리(1), 휴대편(6), 도움(10), 중중(11, 존중), 부토(12, 부터), 중요(13), 나을(26, 나을), 의사소통(27)
- c. ㅂ/ㅍ: 마음(10), 소통을(10)

다소 특이한 것은 중성의 사례이다. 중성은 올림소리 첨가 사례가 많았으며, 첨가만큼 이유 없는 탈락 사례도 올림소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ㄴ/ㄹ, ㄴ/ㄱ/ㅇ 간 혼용례가 많았다. 특징적인 것은 인도네시아인이 ㅇ, ㄴ 발음을 잘 구별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따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일부 학습자들은 ‘중요하다’와 ‘조용하다’의 구별을 어려워하기도 한데, 의미가 전혀 다른 두 단어의 혼용은 오히려 형태에 이끌린 착각으로 해석된다.

## 예 15) 중성 오류

- a. 첨가: 중용(2, 중요), 이안기(15), 의사손통(15), 의상소통(18), 정성적(32, 정서적), 중요(33, 중요), 주용(34, 중요)
- b. 탈락: 해동(8, 행동), 시념(10, 신념), 없으며(12, 면), 첫번째(12), 몰라습니다(18), 말하때(18)
- c. 혼용: 은/을(7), 감점(13, 감정), 간정(32, 감정), 건간(34, 건강), 감적(34, 감정), 주용하다(1), 중중(11, 존중)

## 2.6 기타

끝으로 직역으로 인한 문장 오류 및 내용이 안 맞는 문장을 다음 예 16)으로 정리했다.

## 예 16) 내용 오류 및 직역문

- a. 그런 같은 문제가 생기고 싶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한다(16), 갈등을 이루어질 수 못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경해야 오해한 경우가 없게 만들다(16), ...방법을 한다면 일상생활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란다(35)
- b. 그 모든 설명한 예시로 인해 의사소통에 대한 갈등이 발견하게 되었다.(17)

그중에서도 가정을 말하는 절(-면)의 후행절에서 이런 예가 많았다. 연구자에 따르면 다음 예 16)의 a와 같은 문장이 인도네시아 언어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오류문은 주로 특정인의 과제물에서 집중으로 발견되지만, 이것이 모어와 목표어 사이의 괴리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3. 맺으며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 특성을 살펴, 대상 학습자의 글쓰기 교수 학습 시 고려할 사항을 알아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습자의 글을 받아 오류를 확인하면서 해당 오류에 대한 분석을 대조분석학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학습자의 글쓰기를 지도하기 위해 글의 구성, 구어와 문어의 인식 및 구별적 사용이 주요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습자는 문장 생성 시, 조사와 용언 활용, 관형어와 부사어 등 수식어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한 예가 많이 도출되었다. 관형어를 생성하는 접미사 ‘-적’을 조사로 인식하여, 이를 문장에서 명사로 처리하는 사례를 다수 보였다. 또 목적어에서 오류를 많이 보여, 초급 단계에서 관련 내용에 교사가 유의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휘 선택 시 직역하는 경향이 있는 학습자는 연어 구성과 상용 표현에도 어색한 결과를 산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국외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국어원 K-티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전망\*

강남옥(성균관대학교)\*\*

### 1. 배경 및 개황<sup>1)2)</sup>

- 현지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 대두
- 파견형의 한국어 교원에서 현지 성장형의 비원어민(NNS) 한국어 교원의 활동 여건 성장
- 공인된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수요
- 국립국어원의 ‘K-티처 프로그램’의 개발
  - 2022년 국외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연구 사업(K-티처 설계, 기초 교과목 개발)
  - 2023년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인증과정(75차시) 과정 시행(범용 과정 교과목 개발)
  - 2024년 4월부터 범용 과정 운영 실시(130차시),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추가 시행 중
- 본 발표에서는 2024년 K-티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

### 2. K-티처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

#### 2.1. 2024 K-티처 프로그램의 개요

- 2022년부터 연속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사업 추진 중
- 2023년에 130차시에 해당하는 전체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 완료되고 검수가 끝남
- 2024년부터 본격적인 ‘범용 과정’ 운영 시작되어 비원어민 해외 교원 역량의 실천이 진행 중
- 2024년에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운영(대조언어학, 발음교육론)
- 지역 거점을 두어 설명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확산을 유도

\* 본 발표문에서는 발표 주제와 관련한 개략적인 내용만을 개조식으로 제시하였으며, 발표문에 담지 못한 사항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부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이 발표는 발표자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며, 국립국어원의 2024년 연구 과제인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K-티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연구책임자: 이승연(삼육대학교))”의 준비와 운영 과정을 본 과제의 공동연구자의 자격으로서 발표하는 것이다.

K-티처 프로그램의 '정착'과 '확산'을 통한  
국외 한국어교원 역량 강화



〈그림 1〉 2024 K-티처 프로그램의 과업 내용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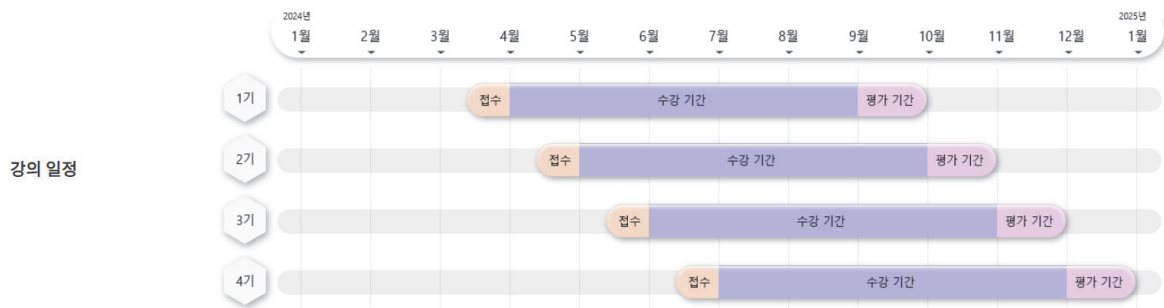
〈표 1〉 K-티처 프로그램 범용 과정 수강 과목 및 차시

연번	영역	과목명	차시
1	한국어학 및 언어학의 이해	한국어학 개론	3
2		한국어의 역사	3
3		한국어 화용론	3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	4
5		한국어와 사회언어학	2
6		한국어 말뭉치 언어학	2
7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3
8		사례를 통해 보는 한국어 어문규정	3
9		한국어 어휘론	3
10		언어유형론	3
11		외국어 습득론	3
12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 교육론	2
13		한국어 교육과정	3
14		한국어 교재론	3
15		한국어 문법 교육론	6
16		한국어 통번역 교육론	3
17		한국어 발음교육론	3
18		한국어 듣기 교육론	3
19		한국어 읽기 교육론	3
20		한국어 말하기 교육론	3
21		한국어 쓰기 교육론	3
22		한국문화 교육 방법과 교육 설계	3
23		한국 문학 교육론	3
24		한국어 교수법	9
25		한국어 평가론	9

26	한국문화	한국의 현대문화	4
27		한국의 역사	4
28		한국의 생활문화	4
29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 실습의 이해	3
30		교수 설계와 교실 수업 운영	3
31		교재와 교구 활용	4
32		초급 통합 수업	6
33		중고급 통합 수업	4
34		초급의 기능 수업	5
35		중급의 기능 수업	5
합계			130

- 이수 조건: 이론과정: 80% 수강, 실습과정: 95% 수강, 종합평가: 60점 이상  
(시험 기간: 1개월, 시험 기회: 3회)

## 2.2. 2024 K-티처 프로그램 범용 과정의 운영



기수	접수 기간(수강 신청 기간)	수강 기간(5개월)	평가 기간(1개월)
1기	2024. 3. 18.~4. 14. 23:59	2024. 4. 1.~8. 31. 23:59	2024. 9. 1.~9. 30. 23:59
2기	2024. 4. 15.~4. 30. 23:59	2024. 5. 1.~9. 30. 23:59	2024. 10. 1.~10. 31. 23:59
3기	2024. 5. 15.~6. 2. 23:59	2024. 6. 3.~10. 31. 23:59	2024. 11. 1.~11. 30. 23:59
4기	2024. 6. 15.~6. 30. 23:59	2024. 7. 1.~11. 30. 23:59	2024. 12. 1.~12. 31. 23:59

〈그림 2〉 2024년 K-티처 범용 과정 강의 일정(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 단체 신청 특별 학기제(특별 과정) 운영: 현지의 조건에 따라 해당 대학의 학기 유형에 맞추어 “K-티처프로그램 OO 대학 특별과정(가칭)”으로 개설할 수 있음.
- 4월~7월까지 매월 1일 개강(이전달 15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개강 후 4개월째 되는 날부터 종합평가 응시 가능
- 단, 이수 조건(이론 80%, 실습 95% 수강 및 만족도 조사 응답 완료)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할 수 있음.

### 3. 2024 K-티처 운영 현황과 전망

- 2024년 범용 과정 1기에 210여 명 수강(중국 55, 러시아 47, 베트남 43, 대만 11, 태국 6 등) 중
- 2024년 범용 과정 2기에 116여 명 수강 진행 중(발표문 작성 시점 현재)
- 8월 전후로 지역 특화별 콘텐츠 개발 예정  
(각 지역의 추천 받은 교수진이 현지어로 개발할 예정임)
- 이 과정은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 시행됨으로써 해외 한국어 교원 개발에 있어 안정적인 기본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함.
- 해외 대학에서 K-티처 프로그램을 현지 대학의 일부 학점 인정 과목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약 등이 추진 중임.

#### ■ 참고문헌 ■

생략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박진철(연세대학교)

에듀테크 기반의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박진철(연세대)

1. 들어가기

Top Tools for Learning 2023 : Results of the 17th Annual Survey  
Tools By Category

**CONTENT (& APPS)**  
video/Film: YouTube, Vimeo, TED, NETFLIX  
podcasts: Audible, GetAbstract  
e- & audio books & summaries: GetAbstract  
presentations: LinkedIn Learning  
courses: Coursera, FutureLearn, U

**CONTENT DEVELOPMENT**  
documents, presentations, spreadsheets: Microsoft Office (Word, PowerPoint, Excel), Google Docs, Google Sites  
screenshots & screencasts: Camtasia, Loom, Screencast-O-Matic  
video & editing: Synthesia, Pr, Hihoho  
interactive educational content: LiveWorksheets, Wordwall, Edpuzzle  
live engagement: Kahoot!, Mentimeter  
pdfs: Adobe Acrobat  
blogs & websites: WordPress, Google Sites  
graphics: Canva  
photo editing: Photoshop (Ps)  
animation: Powtoon  
interactive content: Giphy, Hihoho  
forms: JotForm, Microsoft Forms (F)  
quizzes: Quizizz, Quizzes, Articulate, Easy  
live video streaming: Mediasite

**COMMUNICATION & COLLABORATION**  
email: Gmail, Outlook  
video meetings: Zoom, Viteo, Webex  
messaging: WhatsApp, Telegram, Discord, Slack, Microsoft Teams  
file sharing: OneDrive, Dropbox, Google Drive, Trello  
collaborative whiteboards: Mural, Miro, Jamboard  
social networks: Instagram, TikTok, LinkedIn, Facebook, X

**WEB TOOLS**  
browsers: Chrome, Brave, Bing  
search & reference: Google, Bing  
translators: Google Translate, Bing  
digital notebook: OneNote, Evernote  
productivity: Trello, Asana, 31  
curator: Wakelet

**LEARNING PLATFORMS**  
Canvas LMS, Moodle, FutureLearn, Edmentum, Blackboard, FutureLearn, FutureLearn, FutureLearn

This image can be reused with full attribution:  
Jane Hart. Top 100 Tools for Learning 2023 [top100tools4learning.com](https://top100tools4learning.com)

1. 들어가기

❖ 교육 환경의 변화

다양성 인정

- ▶ 타인의 취향 존중
- ▶ 삶의 방식은 선택사항

여가 중시, 현실성

- ▶ 일과 삶의 균형 중시
- ▶ 노력 대비 보상, 현재 중시

환경·윤리적 가치 중시

- ▶ 가치관 기반 소비
- ▶ 선한 영향력



MZ 세대

MZ세대 특징

자기 중심적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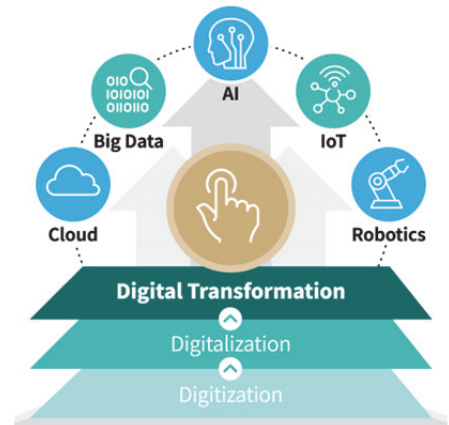
- ▶ 나만의 스타일 추구
- ▶ 맞춤형 선호

디지털 네이티브

- ▶ 신기술에 친숙
- ▶ SNS로 가치관 표현

재미 추구

- ▶ 즐기는 소비·투자
- ▶ 취향 공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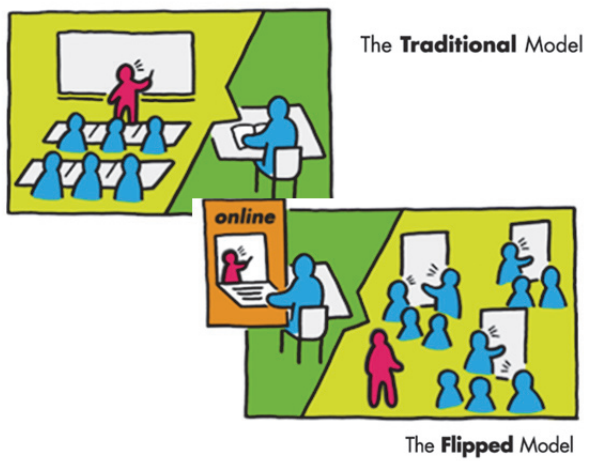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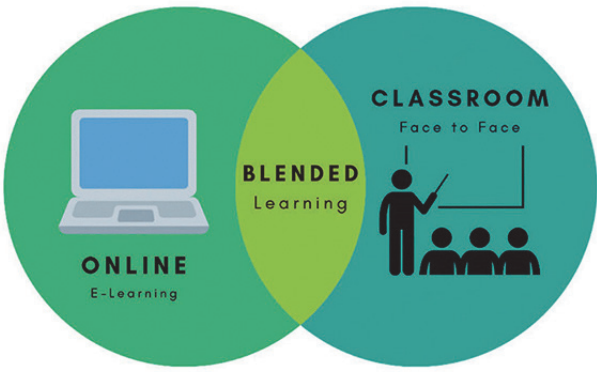
출처: <https://mkyu.co.kr/major/details/200238>

출처: [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37416-5](http://terms.tta.or.kr/dictionary/dictionaryView.do?word_seq=137416-5) (정보통신용어사전)



## 1. 들어가기

### ❖ 교육 환경의 변화(새로운 교수학습 방식)



출처: 서울교육 2020 봄호(238호), BL기반 협력학습을 통한 탄탄한 기본기 쌓기

## 2.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운영 방식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혁신을 이끌었고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뜻하는 **에듀테크(EduTech)**라는 용어가 등장함(Sullivan et al.,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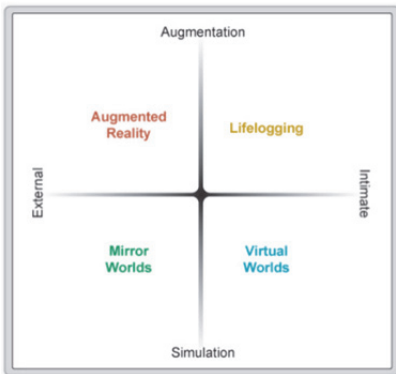
연구자	개념
이현청(2018)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교육내용이 융합되는 융합형 교육방법
백정열(2018)	전통적 기존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VR, AR, 3D등 신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
홍정민(2018)	교육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창출해 내는 것

<표 > 에듀테크의 개념

## 2.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

### ❖ 메타버스(Metaverse)

- ‘초월 또는 상위’의 의미인 접두어 메타(Meta)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2007)

유형	내용	예시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현실공간에 가상의 물체(2D 또는 3D)를 겹쳐 상호작용하는 환경	포켓몬Go, 디지털 교과서
거울세계 (Mirror Worlds)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	구글 어스, 네이버 지도
가상세계 (Virtual Worlds)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 세계	세컨드 라이프, 제페토
라이프로깅 (Life Logging)	사물과 사람에 대한 경험·정보를 저장, 가공, 공유, 생산, 거래하는 기술	소셜미디어, 삼성헬스

박진철(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가능성 탐색

## 2.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온라인 공간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간접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가 각광을 받고 있음.

메타버스 기술은 과거 이러닝(E-Learning)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기반 교육을 한 차원 진화시키고 있으며 (박진철, 2021) 2021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사회 각 분야로 파급되었음.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수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음(권미경,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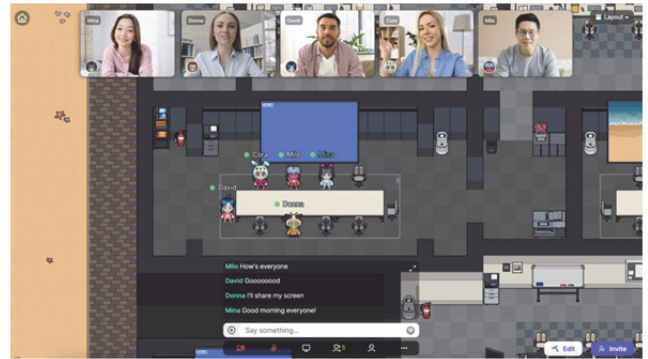
메타버스 활용 연구는 주로 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교육에서는 장지영(2021), 박진철(2021), 류선숙(2022), 이해영·정혜선(2022), 위약요·최은경(2022), 허지운(2022), 권미경(2022) 등 대표적임.

## 2. 에듀테크(EduTech) 기반 교육

젼(ZEP)은 메타버스 유형 중 거울 세계(Mirror World)와 가상 세계(Virtual World)의 장점을 통합



〈메타버스 세종학당〉



- 젼(ZEP) <https://zep.us/home/spaces>

## 3.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문화교육

대학에서 문화 교육을 위해 교양이나 전공으로 개설된 한국 문화 교과목은 '한국 사회, 역사, 정치, 문학, 문화' 등 강의 내용이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내용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전용 과목 가운데는 외국어로 진행되기도 함(이승연 외, 2021)

한국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를 확장하여 메타버스 상에서 해당 주제와 연계된 문화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설계함

수업 자료의 문화적 요소를 문화 여담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부족한 시간을 극복함

텍스트를 비롯한 시청각 매체를 탑재함으로써 수업에서 제시된 내용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한국어 학습으로의 동기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3.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문화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에 탑재되는 문화 콘텐츠는 강의 계획 단계에서 교수자 주도적으로 선정하되 교재의 주제와 연계하여 구성함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전래동화, 웹툰, 한류 문화 콘텐츠, 공공기관 제작 영상(세종학당재단, 한국관광공사, Korea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등), K-Mooc, 웹·영상광고, 실감형 콘텐츠, 뉴스 기사 등 다양한 양질의 문화 콘텐츠

학습자들의 공간의 별도로 설계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함

### 3.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문화교육

#### 정신 장애의 치료 방법

현대 사회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봐 일에만 파묻히다 보면 자신이 다 소진되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신과 방문을 꺼리는데 정신 장애는 상담이나 약물을 통해 완치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약물 치료 외에도 연극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독서 치료 등 정신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평소에도 가끔씩 멍하게 앉아서 지친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면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남자(교수) : 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보고 온 국악뮤지컬 '춘향' 어땠습니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자1(학생) : 공연을 보기 전에 수업 때 미리 교전소설 '춘향전'을 공부하고 가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남자(교수) : 이번에 본 공연은 원작의 내용을 기본으로 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보여 주었지요. 특히 어느 부분이 좋았어요?  
여자2(학생) : 2막에서 한국의 전통 춤과 비보이 춤을 함께 추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고 정말 신났어요.  
남자(교수) : 요즘엔 전통 문화와 전통 공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많지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공연이 새로운 유행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1(학생) : 저는 그런 현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져야 전통도 유지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통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에듀테크(EduTech) 기반의 문화교육



영화관 스페이스 설계



소설 '소나기' 콘텐츠 탑재



교실 스페이스 설계



전래동화 '토끼의 재판' 콘텐츠 탑재

### 4. 결론

- ✓ 언어 중심 문화 통합 교육이 실시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체계적인 문화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됨
- ✓ 해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열리는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습자들의 교육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됨.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미를 가짐
- ✓ 유튜브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존재하나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 내용과 연계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콘텐츠를 찾기가 어려움. 이에 메타버스는 교육 내용의 연계 및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함
- ✓ 최신 기술에 대한 언어 교육적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활용 연구는 정부 및 유관 기관, 한국어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권미경(2022),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의 가능성 고찰”, <인하교육연구> 28-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77-197쪽.
- 박진철(2021), 한국어 교육에서의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언어문화학> 18권 3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17-146쪽.
- 이승연·이유경·최은지·이선영(2021), 「한국문화교육론」, 도서출판 하우.
- 장지영(2021).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32(4), 279-301쪽.
- 교실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앱 40선\_중등(2017), 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재개발과
- (교재)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1(읽기, 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Smart, E.J., Cascio, J. and Paffendorf, J.(2007), Metaverse Roadmap Overview,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
- Sullivan, A. P., G. A. Davis. & J. C. Stewart.(2018), Edtech effectiveness: using screencasts to increase learning outcomes in information systems curricula, Issues in Information Systems 19-1, pp. 39-53.